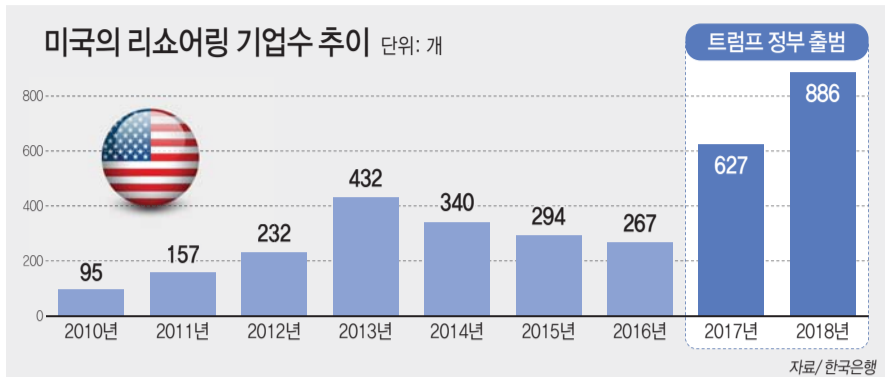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 이후 脫세계화·리쇼어링 속도 붙을 것”

(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

한은, 포스트코로나시대 항방·시사점 주요국, 코로나 대응에 자국이익 우선 비대면·디지털 분야 글로벌 대응 확대 디지털경제 서비스업 확장세 이어갈듯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업 분야와 기후변화 이슈 등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이동원·이아람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BOK 이슈노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항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글로벌 산업통상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 탈세계화 가속…보호무역주의 강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선 주요국이 의료물자 공급부족을 경험하면서 지금의 글로벌 분업 구조가 오히려

려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됐다. 또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의 경제적 영향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생산활동 연계성 강화가 자연재해 등 충격을 증폭하는 요인이라는 인식도 커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략물자산업 보호, 리쇼어링 증가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물자 부족 등을 계기로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물자산업 보호에 대한 지지 여론이 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통상조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행 비용절감 중심의 글로벌 분

업화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점을 노출하면서 리쇼어링(해외에 투자한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 추진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력 대신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공장이 등장해 저임금국가에 생산기지를 구축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은 자국이익을 우선해 의료물자 수출제한, 일방적 국경 폐쇄 등과 같이 상호협력 기반의 자유무역주의와 상충되는 조치를 시행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된 미·중 무역갈등은 앞으로도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화 둔화로 인해 미·중 상호의존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2015년 당시 난민사태, 재정위기 등으로 EU(유럽연합) 회의론이 늘어난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국이 자국 이익에만 집중했고 향후 EU 연대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비대면·디지털 분야, 글로벌 차원 협력 필요

반면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업 분야와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경제의 저변이 확장됨에 따라 향후 동 분야의 교역이 증가하고 서비스 부문 비관세장벽 완화 등 제도개선 압력이 심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통서비스 부문은 회복이 지연되더라도 디지털 경제 관련 서비스업은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세계 경제 회복 촉진, 감염병 재유행 예방, 기후변화문제 완화 등 협력이 긴요한 이슈에서는 세계적인 공동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감염병 발생 원인과 관련성이 높은 기후변화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고, 특히 보건위기와 기후변화 문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국제적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세계화 퇴조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서비스교역 관련 통상규범 정립 등의 과정에서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사례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된다”며 “이점을 활용하는 한편 향후 기후변화 협약의 강제성 부과 등의 논의에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여 국제논의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박미경 수습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다시 증가세... 지난달 외환보유액 4073억弗

지난 달 33억달러 늘며 두달 연속 ▲ 외화자산 달러화 환산액 증가 영향 4월말 韓 외환보유액 세계 9위 수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김희주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3억 달러 넘게 늘어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0년 5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73억1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33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월 감소 전환하며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4월 37억7000만달러 증가한 뒤 지난달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것은 외

화자산 운용수익,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미국 달러화지수(98.38)는 전월 대비 1.5% 감소했다.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3657억1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42억달

러 늘었다. 해외 중앙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 맡긴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300억1000만달러로 12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은 28억달러로 4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우리나라가 IMF 회원국으로서 낸 출자금 중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인 IMF 포지션은 39억달러로 7억9000만달러 늘었다. 금 보유액은 47억9000만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4040억달러)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중국(3조915억달러), 2위는 일본(1조3686억달러), 3위는 스위스(8877억달러) 순이었다.

/김희주 기자 hj89@



홍경식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사무국장 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오른쪽)이 마트에서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한국은행

실물 카드없이 현금인출... 잔돈은 내 계좌로

한은,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실시 거래은행 다른 경우 대금결제 가능

앞으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입출금은 물론 결제, 잔돈 계좌입금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3일 은행 계좌 기반의 모바일 직불(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그동안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14개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16곳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서비스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금융원 협의회로, 의장은 한은 부총재가 맡는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현재 플라스틱 카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금IC카드(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한다. 은행 계좌를 보유했다면 누구나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하면 CD·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은 물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의 대금결제,

현금인출(캐시백·cash-back),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참여은행 간 가맹점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예금계좌 보유 은행과 가맹점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참여은행 간 CD·ATM 교차 이용도 된다.

이번 서비스는 16곳 중 SC제일·농협·제주·수협·우리·대구·전북·경남은행과 농협·수협중앙회 등 10곳은 먼저 시작한다. 나머지 은행은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금결제 등을 위한 가맹점 서비스는 농협하나로마트 직영매장 약 300곳에서 우선 실시된다. 올 하반기 중이마트 24(4697곳), 미니스톱(2593곳), 현대백화점(백화점 15곳, 아울렛 6곳)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가맹점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의 이용 편의는 높아지고 낮은 가맹점 수수료, 빠른 대금 입금 등 사회적 후생은 높아지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희주 기자

수은-LH,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강화

국내기업 수주확대 업무협약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해외 스마트시티·인프라 개발사업 부분의 국내기업 수주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해외 스마트시티·인프라 개발 사업에 관한 ▲공적개발원조사업과 투자개발사업의 유기적 연계 ▲투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은 금융 활용 ▲유망 사업의 발굴 및 개발 협력 등이 담겼다.

수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인도 도심 재개발사업 등 해외사업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

으로 낼 것으로 내다봤다. 수은은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과 풍부한 해외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 경험이 있고, LH는 다수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밖에도 두 기관은 향후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혁신성장산업 지방문규 수출입은행(왼쪽)과 변창흠 LH 사장이 3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해외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했다. 수출입은행, 신남방·신북방국가와의 지역개발 등 대외경제협력 측면에서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의 효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왼쪽)과 변창흠 LH 사장이 3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해외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했다. /수출입은행

율적 운영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상호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